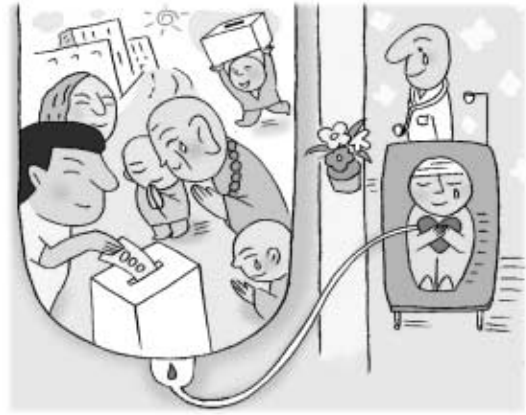


# 병든 이웃 고통나누기 20년

## 산청 은혜사 혜전스님의 원력행



7월31일 오후 서울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 경남 산청 은혜사 주지 혜전스님이 병상에 누워있는 용래(산청 덕산중 3권을 낚 나간 사람처럼 바라 본다. 평소 "선생님이 되고 싶다"며 활짝 웃곤 했던 용래의 모습을 생각하니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다. 용래의

아버지 이태조 거사는 은혜사에서 일하는 가족같은 사람이다. 이용래 군은 지난해부터 재생불량성 빈혈로 치료를 받아오다 두 달 전 백혈병 진단을 받고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결과는 썩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병세도 문제이지

만 막대한 수술비와 병원비를 마련하는 것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얼마 전 혜전스님이 사재를 털어 병원비를 내놓자 신도들도 용래를 돕자며 모금을 했다. 하지만 신도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생각다 못한 혜전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방송국 프로그램의 방영을 추진하는 등 백방으로 용래를 위해 뛰

### 91년 '지장계' 구성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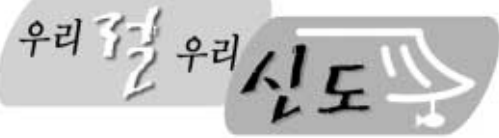
### 백혈병학생 돕기 동분서주

### 수술비 막막, 각기관 연계 모색

어다지고 있다. 지금은 산청읍내 각급 기관과 연계하거나 읍내에 모금함을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모색 중이다. 혜전스님이 이렇게까지 나서는데는 이유가 있다. 혜전스님은 20여년 전 골수염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장애인이다. 현재는 의족을 하고 생활하고 있

는데, 다리를 절단하면서부터 장애인과 불우한 이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소쩍새마을, 연꽃마을, 나한자촌, 각 지역 복지원 등 20년이 넘게 복지시설들을 방문하면서 후원을 해왔다. 이것도 모자라 혜전스님은 91년 신도들로 구성된 '지장계'를 만들어 불우이웃 돕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00여명의 지장계 회원들은 2-3개월에 한 번씩 지역 불우이웃이나 소쩍새마을, 홍주 진여원 등을 방문, 후원을 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도 펼쳐왔다. 지장계 박정희 총무는 "스님께서 저렇게 나서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모금을 다시 하고 용래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래의 병실을 나선 혜전스님은 "여기저기 더 도움을 청해봐야겠다"며 걸음을 재촉했다. 후원 계좌 : 농협 835013-52-045094(이태조), (055)973-1863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우리 식구 먼저 포교해야죠”

###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약천사 전무량 보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있으면서도 시골 고향 같은 편안함을 주는 절.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약천사(주지 자운스님)는 그런 곳이다. 입지조건·거리가 멀다. 지하철 7호선 노원역에서 10여분 거리의 한 상가건물에 들어서 있는 약천사는 큼지막한 약국, 호프집, 간판 덕분에 낯설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다.

음력 초하루인 지난 7월 29일. 법회를 마칠 때쯤 약천사를 찾았다. “○○엄마, 자리 없으면 이리 와서 같이 먹어.” “그래도 어떻게

않는다는 것이 주지 자운스님의 자랑거리다. 전무량(62) 보살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서울 시내의 여러 큰 절들은 다 ‘다녀왔다’는 무량 보살은 자운스님을 만난 이후, 법회 때 다른 일이 있어 참석 못 하면 아침 일찍 미리 들러 기도하고 갈 정도로 신심 깊은 불자가 됐다. “신도 늘리고 그런데는 관심 없고, 그저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너무 욕심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 스님과 한 번 인연 맺은 신도들은 또 다른 사람들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이만큼이라도 절이 큰 것 같아요.”

### 욕심없는 스님이 좋아 온 가족이 신도

### 전세 벗어나 여법한 도량 갖추는것 서원



◇전무량 보살(사진 오른쪽)이 초하루 법회를 앞두고 불단을 정리하고 있다.

스님이란 걸음...” “뭐, 어때요. 밥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데.” 시골장터 같은 부대길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곳. 첫 방문인데도 왠지 편안한 이유다.

4년 전, 상계5동 동사무소 뒤편 단칸방(1)에서 시작한 도심 포교당 약천사가 이 곳으로 옮겨온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꾸준히’ 법회에 참석하고 기도하러 오는 신자가 아직 30-40명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겨울 찬 바람 맞으며 절해야 했을 때부터 같이 온 신도들이라 ‘신심’ 하나는 어느 절에도 뒤지지

7남매 중 맏이던 무량 보살 덕분에 친정, 시댁 식구들도 모두 약천사 신도가 됐다. “가까운 우리 식구들 먼저 포교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절에 오라 할 수 있나요.” 오히려 반문이다.

그래도 물어 듣 서원 하나가 있다. “한 번이라도 더 모시고 와 부처님 가피를 입을 수 있게 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약천사가 이런 상가건물 전세살이에서 벗어나 여법한 도량으로 커 나갔으면 해요. 성불하십시오.”

권형진 기자



### 추천의말

### 자운스님 서울 약천사 주지

전무량 보살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불자입니다. 젊은 물론 동네 대소사까지 다 챙기시는 분이예요. 법회 마치고 남는 음식이 있으면

### 오히려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가져다가 동네 어르신들에게 다 나눠줄 정도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도 앞장서서 구요. 그리고 처음 포교당을 낼 때부터 함께 한 신도와 저보다 절 일을 더 걱정하십니다. 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이제 시작”이라며 오히려 저에게 힘을 줍니다.

## 미륵사지 주변 난개발 규제 ‘시설용지 지구’로 지정예정

전북 익산시는 국가사적 150호로 지정되어 있는 미륵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미륵사지 주변 경관의 훼손을 막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상 ‘시설용지 지구’로 지정, 개발 계획에 어긋나는 건축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7월 30일 밝혔다. 시설용지 지구로 지정되는 면적은 미륵사지 앞 14만8천여㎡로, 앞으로 이 구역 안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수립할 주거 상업 녹지 등 용도지역과 개발계획에 부합해

야 한다.

시는 오는 9월께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 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미륵사지 주변을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도심과 떨어져 있어 농림 또는 준농림 지역인 미륵사지 주변은 건축행위 등에 큰 제약이 없어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는 하루 1만여명의 등산객이 미륵산으로 몰려 미륵사지 주변에 음식점과 상가 30여 곳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박봉영 기자

### 회관, 국방장관·대사일행

### 백련사에서 한국불교 체험

네덜란드 국방장관과 대사 등 일행 20여명이 전남 강진 백련사(주지 해일)에서 참선을 비롯한 한국 사찰문화를 체험했다.

네덜란드인 하멜 표루 350주년 기념 행사 참석차 방한한 카프 네덜란드 국방장관 부부와 하인드 브리스 주한 네덜란

드 대사 등은 7월 28일부터 1박 2일간 백련사에서 아침예불과 참선을 직접 경험했다.

주지 해일스님은 “3개월에서 10년까지 외부출입을 삼가 채 수행생활을 하고 있는 무문관을 소개하자 동양의 선불교에 감동하는 것 같았다”며 “특히 카프 국방장관의 부인 델링 여사는 중국 유학경험을 얘기하며 불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광주 증심사 대웅전

### 장마로 처마 일부 훼손



광주 증심사(광주시 문화재자료 1호) 대웅전(사전)의 처마 일부가 장맛비에 훼손됐다.

문화재청은 1일 남부지방에 계속 내린 장맛비로 대웅전 뒤쪽 처마 부분의 부연(처마를 위쪽으로 올라가게 하여 빗을 내기 위해 덧없는 짧은 서까래) 한두 칸이 부러지면서 지붕 기와가 흘러내리는 등 일부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광주시로부터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훼손 부분에 빗물이 들지 않도록 우장막을 씌우고 처마 일부부에 지주를 받치는 등의 긴급 조치를 했다.

문화재청 담당자는 “지은 지 300년이 넘다 보니 대웅전 처마의 추녀 부분이 내리 앉는 등 건물 구조상의 문제점도 노출돼 3억5천만 원을 보수비로 지원해 달라는 광주시의 요청이 있었다”며 “1일 현재 장마로 인한 다른 사찰문화재의 피해는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 ‘신나고 잦있는 우리절 짱’

### 당진 흥국사 여름불교학교

어린이들이 친누나 친오빠의 손을 잡고 부처님을 그리고 율동을 배우며 오색실에 염주 알을 꿰는 흥겨운 자리가 마련됐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당진 흥국사(주지 법공) 경내에서 ‘제20주년 흥국사 여름불교학교’가 열렸다.

‘신나고 잦 있는 우리절 짱!’을 주제로 2박 3일간 진행된 여름불교학교에는 6세부터 12세까지 130여 명의 새싹불자들이 참가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흥국사 여름불교학교의 분위기는 어느 사찰의 것과는 다르다.

친누나 친오빠가 올해 처음으로 여름불교학교에 참가한 동생을 보살핀다는 게 도드라진 특징이다. 중·고등부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서로 순번을 정해, 여름불교학교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선 것도 주목된다. 도우미를 역시 초창기 흥국사 여름불교학교에 참가, 불교의 참맛을 본 이들도다.

“농어촌 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새싹들에게 불심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법공 스님은 “신명만 일대(총남) 당진군 소재에서 어린이들의 발심터가 될 수 있도록 흥국사를 꾸리고 싶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 대구불교방송 포항·안동 중계소 오는 11월 개국

### - 포항 FM105.5 안동 FM97.7 로 개설허가 -

대구불교방송은 정보통신부와 경북채신청으로 부터 “**불교포항 FM중계소·불교안동 FM중계소**” 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포항 FM 105.5MHz 안동FM97.7MHz로 오는 10월 시험방송을 거쳐 11월 중순에 개국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역적 특성과 송신 출력의 한계로 전파도달이 어려웠던 55만 인구의 공업도시 포항과 영덕, 경주 일부, 그리고 경북 북부지방의 중심 안동을 비롯 영주, 문경, 의성, 봉화 등 경북 동부와 북부 대부분 지역에 부처님 법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끼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대구불교방송 후원가족 그리고 애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포항·안동 중계소 설립 후원 ARS전화  
060-701-0408 (한통화당 2,000원)

## BBS 대구불교방송

www.dgbbbs.co.kr FM94.5MHz